

###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반중(嚴中) 조흥(厚紅)같이 고와도 보이나다/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엄측도 하다가는/ 품어가 반길 이 업슬새 글로 설위하노라”

잘 아는 대로 정철·윤선도와 함께 조선 3대 시가인(詩歌人)으로 불리는 노계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시조다. 그가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을 찾아가 귀한 홍시를 대접받은 것은 선조 34년이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어버이를 떠올렸지만 홍시를 품어다 바치고 싶어도 정작 반길 이가 없으니 얼마나 서러웠겠는가.

박인로가 이덕형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이덕형이 사도제할사로 영남 고을들을 순찰하던 중 영전(榮川)에 이르렀을 때다. 이때 영남 지역의 유림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중에 박인로도 있었다. 당시 둘의 나이는 41세로 같았으니 금방 친해졌겠다. 시조는 그렇게 해서 탄생할 수 있었다.

그에게 홍시를 대접한 한을 이덕형은 오성 이항복과 함께 많은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영의정까

지 지낸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전란 중 명나라의 파병을 성사시킨 일도 그 중 하나다. 당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청원사로 가면서 그가 오성에게 했던 말은 감동적이다. “만약 내가 군을 이끌고 오지 못하면, 중국에 내 뼈를 묻고 다시는 압록강 너머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저런 결기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나라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그때나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시진핑과 트럼프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판에 과연 ‘당치고 맛있는 여자’라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함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는지? 이럴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5000년 한국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불리는 고려 초의 문신이자 군인인 서희(徐熙, 942~998)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협상가로, ‘칼보다 무서운 혀를 지녔다’는 평을 듣는다. 때는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던 해다. 고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들 거란의 요구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화평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침략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

는 것을 간파한 서희는 거란족의 장군 소손녕을 만나겠다고 자청한다.

서희를 맞은 소손녕은 자신이 대국의 귀인이니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희는 왕이 보낸 사신으로 대우해 달라며 당당하게 거절한다. 그러럼 먼저 기선을 제압한 그는 정확한 정세 판단으로 우리 땅을 떼어 주기는커녕 전쟁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영토를 얻어 왔다. 이후 서희는 여진족을 몰아낸 뒤 강동 6주를 고려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고구려 멸망 이후 처음으로 국경이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러한 뛰어난 성과는 말만 번드레하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탁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벌리한 처지에서 발인 담판이었지만, 거란이 송나라와 전쟁 중이어서 고려 정복에 큰 힘을 쏟기 어렵고, 고려를 견제하는 것에 만족하리라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려가 송나라와 관계를 끊는 대신,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 동쪽 280리 지역을 돌려받기로 했다. (거란은 뒤늦게 이 지역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고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고려는 거부했다.)

비록 그들의 요구대로 국교를 맺어 이후 일시적으로 사대의 예를 갖추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의 대군을 돌려보내고, 오히려 이를 전 화위복으로 삼아 영토까지 얻었으니 우리 역사상 가장 실리적으로 성공한 외교였다. 송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란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

고, 또한 산악지대 전투에 자신감을 잃은 거란군의 상황을 읽어 낸 통찰력, 논리 정연한 언변, 거기에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과거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 그것에 문제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자 국제무대 데뷔다. 공식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열리게 된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 사상 최고 수준의 파격 예우를 받았으며 수선을 피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 부부와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 일정을 잡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니 그럴 만하다. 게다가 미국 첫 공식 방문길에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 이상을 하는 한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한다.

####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이러한 파격적인 환대의 기류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드 배치와 비용 문제 혹은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놓고 트럼프로부터 어떤 요구가 불쑥 불거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드를 물

릴 것도 아니라면 미국과의 동맹 외교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사드로 인한 경제 압박과 위안부 합의 문제 등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일이다.

이는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 앞에는 진실로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曹操)의 말인데 과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끼인 신세인 우리나라로서는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 온갖 난관과 예로를 뚫고 나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 일반 시민이나 야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자명해진다. 그것은 실력 대통령이 그들의 비위를 맞춰 준다 해서 시대(事)라 쏘아붙이지도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한다 해서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도 말자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태처럼 얽힌 난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여기에 국제 무대 경험이 많은 백발의 강 장관이 구국(敎國)의 외교를 펼쳤던 고려 시대 서희처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면 더욱 좋은 일이고.

## 광주·전남 하늘길 ‘활짝’

### 광주공항, 진에어 제주 노선 취항...‘저가항공’ 전성시대 베트남 비엠텡 “무안공항, 장거리 허브공항 활용” 검토

광주공항에 저가항공사의 정기노선이 잇따라 취항하고 있는데 이어 무안 국제공항에도 베트남 정기노선 취항이 추진되는 등 광주·전남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저가 항공사는 무안공항을 장거리 노선의 허브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베트남 비엠텡 항공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전남도청을 찾아 베트남 노선 취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비엠텡 항공은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노선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비교적 여유롭고 지상 조업 여건도 양호해 허브 공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와 비엠텡 항공은 하반기에 다시 만나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기노선 취항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항공 수요 등에 따라 전남도와 항공사의 합작 형태 저비용 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설립이 논의될

여지도 있다.

무안공항에서는 일본·베트남·중국 등을 오가는 전세기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며 해외 정기노선은 무안~베이징 노선뿐이다. 비엠텡 항공은 베트남 첫 민간 항공사로 국영 베트남 항공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만큼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인천~하노이·호찌민·하이퐁·다낭, 부산~하노이 등 노선을 운항 중이다.

한편,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도 30일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갖는다. 진에어는 30일부터 광주~제주 구간을 1일 왕복 2회 운항한다. 그동안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 취항하던 광주공항에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에 이어 진에어까지 진출하면서 광주공항도 저가항공(LCC) 전성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들 저가항공사와 함께 광주~김포 노선 증편, 광주~김해 노선 재운항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익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문협회 창립 60주년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축하연에서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가운데)이 내빈들과 함께 떡케이크를 커팅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낙인 서울대 총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염재호 고려대 총장. /연합뉴스

### 내달 3일 광주서 첫 美 독립기념일 행사

광주에서 첫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행사가 열린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제24회 미합중국 독립기념일 리셉션’을 다음달 3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는 매년 서울, 부산에서 개최됐지만 광주행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마크 내퍼(사진) 미 대사 대리가 그동안 한·미 우호관계를 쌓아온 광주 시민에 보답하는 취지로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한국을 떠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재임기간 동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를 관람하고 미국 대사로는 최초로 전남대에 강연을 하는 등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각별한 ‘광주사랑’을 보였다.



특히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1월 기말해제된 5·18 관련 미국 정부 문서 수십 건을 5·18 기념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독립기념일 리셉션에는 운장현 시장과 대학·자치단체 등의 각계 인사, 광주·전남·북 지역민 등 250여 명이 초청됐다. 행사는 마크 내퍼 대사 대리의 기념사와 윤 시장의 축사, 기념 공연 순으로 2시간 동안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보6억 월2,000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보1,5억 월1,222 포함)
7. 수완동 2층 상가건물 대331㎡ 매9,5억(보7,000 월5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신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번 대770㎡ 매23억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애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

**펜 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 펜션부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복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탐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 노하우 **올레탐공인중개사** 가성후·가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 쇼핑몰 MD, 웹디자이너 모집

농협회사법인(주)조이아드와 함께 온라인 식품산업을 선도할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합니다.

당사는 2001년부터 17년간 종합쇼핑몰, 홈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 농수축산물부문 전자상거래 산업을 선도해 오고있는 온라인 식품종합전문기업입니다.

**모집부문**

| 구분    | 인원 | 부문      | 주요업무            |
|-------|----|---------|-----------------|
| 식품MD  | 0명 | 신입 및 경력 | 상품관리 및 기획, 상품개발 |
| 웹디자이너 | 0명 | 경력      | 웹디자인, 콘텐츠제작     |
| 상품포장  | 0명 | 무관      | 농산물 택배포장        |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웹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 첨부
3. 접수방법 : 이메일(shop@joyard.co.kr) 접수
4. 접수기간 : 2017년 6/26일~7/7일까지

**기타사항**

1. 문 의 처 : 062-523-2530 / 010-7713-2530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0-34 (안산동 401-18) 본초산단 내
3. 근무시간 : 월~금, 08:30~18:30

**농협회사법인(주)조이아드**  
http://www.purgen.co.kr